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Maternal Separation Anxiety: The Relations to Mothers' Characteristics,
Children's Initial Temperament,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소연주

조교수 도현심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So, Eon Joo

Assistant Professor : Doh, Hyun S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with a sample of 212 mothers of 3~6 year-old children. The subjects reporte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children's initial temperament, their own experience in the childhood and personality, and overprotectiven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mothers who experienced higher parental acceptance showed higher maternal separation anxiety; 2) mothers who perceived that their children had avoidant temperament showed higher maternal separation anxiety; 3) mothers who showed higher separation anxiety reported higher overprotectiveness; 4) maternal separation anxiety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approach-avoidance temperament and mothers' sheltering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의 분리불안(maternal separation anxiety), 아동기 경험(experience in the childhood), 인성(personality), 초기 기질(initial temperament), 과보호적 양육행동(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로 유발되는 영아의 불안심리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영아에게 분리불안이 나타나고 감소되는 시기뿐 아니라 이러한 영아의 분리불안을 유발하고 조정하는 요인 등이 여러 연구(Cohen & Campos, 1974; Cummings, 1980)를 통해서 검증되었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어머니-영아의 분리에서 어머니의 행동, 태도, 감정 등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도 분리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불안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가운데 Hinde와 McGinnis(1977)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새끼로부터 떼어놓은 벵골산 어미 원숭이들의 분리 반응을 관찰하였는데, 분리시기 동안 어머니와 새끼 양쪽 모두에게 상호작용의 능력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나 아동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분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나아가 지금까지 영아의 분리불안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연구의 방향이 어머니 쪽의 분리불안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가 점차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슬픔, 죄책감 및 불편함으로 나타나며 분리 사건과 관련된 불안의 일시적 상태를 의미한다(Hock, Gnezda & McBride, 1989; Lutz & Hock, 1995). 이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다결정적인 구성개념으로서, 어머니의 인성구조, 역할과 관련된 신념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들은 분리에 대해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박성옥, 1993).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 및 기질적 특성 등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모두와 관련된다(Hock & Schirtzinger, 1992; Lutz & Hock, 1995; McBride & Belsky, 1988).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시켜 볼 때,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그리고 대인간 애정 및 우울 성향과 같은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Bowlby(1973)는 어머니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한 거부와 유기에 대한 위협과 같은, 가정에서의 적대적 경험을 가정한 바 있다. Fraiberg, Adelson와 Shapiro(1975)도 어머니 분리불안의 요인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때 부모와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억압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스럽고 불안한 어린 시기 경험의 감정요소들은 현재 그들에게 내재화되어서 자녀와 분리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어머니의 어린 시절 경험과 연속된 자기 자녀에 대한 감정의 특성의 세대간 연결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에서, 어머니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와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Lutz & Hock,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성인 애착표상을 의미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분리불안을 어머니의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시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 역시 자녀에 대한 분리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대인간 애정과 자아력(ego strength)이 높은 경우에 어머니는 아이의 감정에 더 민감하고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분리 시에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낸다(McBride & Belsky, 1988). 또한 우울 증세를 나타내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도 자녀와의 분리에 대해 강한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형, 1995; Hock & Schirtzinger, 1992; McBride & Belsky, 198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대인간의 애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력이 넘치며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외향성과, 어머니의 우울적인 성향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향성과는 대립적인 개념의 신경증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McCrae & Costa, 1980). 따라서, 어머니가 가진 외향성이나 신경증성과 같은 인성 특성에 따라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차이가 나타날 것임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아동의 성, 연령, 그리고 기질 등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박성욱, 1993; McBride & Belsky, 1988). 먼저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McBride와 Belsky(1988)는 생후 7~10일된 신생아의 행동을 BNBAS(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전반적 상태 및 각성 정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신생아의 어머니들의 경우에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 동일한 연구에서 3, 9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ICQ(Infant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를 통해 어머니의 인식에 의해 평가되는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측정하였는데,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기질영역은 까다로움, 부적응성, 그리고 둔감성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에는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김민지, 2000; 박성욱, 1993), 기질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동이 이전 시기에 보였던 낮가림 행동과 아동이 나타내는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지영·도현심, 1998). 이는 영아가 초기에 어떤 기질특성을 보였느냐하는 것이 현재 자녀와의 분리에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감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후 6~12개월에 보였던 아동의 초기 기질과 어머니

의 분리불안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결정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주로 아동 측면의 분리불안과 관련시켜서 연구되어 왔으며, 어머니 측면의 분리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안지영과 도현심(1998)의 연구에서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즉 어머니가 아동을 몸에 부쳐서 키울수록, 그리고 아동 훈육에 많이 개입할수록 어머니들은 분리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행동은 보살핌 측면의 양육행동의 '실제'에 초점을 둔 것이고, 아직까지 양육행동의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특히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충분히 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실제로 정신 건강 측면에서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불안은 과보호적 양육과 관련이 있었다. 즉, 높은 수준의 어머니 분리불안이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관계에 기여하게 되어 아이의 개별화 과정을 방해하고, 결국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고 과잉염려하며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해치는 과보호 행동을 부추겼다(Benedek, 1970). 또한 Levy(1970)는 과도한 분리불안의 원인을 어머니의 '양육의 욕구(need of nurture 또는 affect hunger)'로 설명하였는데, 즉 양육을 해주고 애정을 나눠주려는 욕구가 큰 어머니들은 아기가 자신의 접촉과 들뜸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 자신의 아이를 가까이 두려하고 과도한 모-자녀 관계로 몰입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자녀 훈육에 대한 과잉 개입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탁아나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조사하

였고(송진숙, 1994; 이영미, 1997; 이은숙, 1999), 어머니의 특성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결과로서 양육행동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같은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초기 기질이 어머니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히, 과보호적 양육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3가지 차원이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다양하게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제시한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의 과정모델(Process model)과 사회, 환경, 행동, 발달적 요인들은 부모 자신의 애착 역사에 따른 내적 작업모델에 의해 형성된 신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Abidin(1992)의 양육스트레스 모델(Parenting stress model)에 근거하여, 내적 정서인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 및 아동의 특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아동의 초기 기질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4)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 및 아동 특성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212명의 어머니들로, 자녀는 3~6세에 해당하며(평균 연령: 4.9세; 남아: 91명, 여아: 120명) 모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본 연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아동이 빈번한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미루어 보아 자녀가 이 연령층에 속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어머니의 인성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어머니용 질문지로서, 모든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MSAS; Hock, McBride, & Gnezda, 1989) 중 일부인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 요인을 변안하여 사용한 안지영과 도현심(1998)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원래 세 요인으로 구성된 MSAS를 안지영과 도현심(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을 측정하는 요인만을 선택하여 총 21문항 가운데 우리 나라 실정에 적절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길 때 걱정이 된다', '나는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쓸쓸하고 아이가 매우 보고 싶다' 등이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일반적인 분리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88이었다.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Epstein(1983)의 Mother-Father-Peer Scale(MFPS: 부-모-또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MFPS는 원래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각각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 수용 대 거부 요인, 부모 이상화 요인, 또래상호작용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행동과 직접 관련이 되는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9문항)과 수용 대 거부 요인(9문항)의 두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은 아동기 때 부모가 독립심, 자아-회복력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장시켰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용 대 거부 요인은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고 애정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동을 부담으로 느끼고 거부하였는가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항의 예로,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은 '어떤 일을 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했다', '어떤 일을 내 방식대로 해보도록 격려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용 대 거부 요인은 '가끔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셨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 하셨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FPS는 본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과의 경험보다는 부모와의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생각하여 먼저 떠오르는 대상과의 경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되지 않고 독립심이 많이 조장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과 수용 대 거부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75와 .85이었다.

3)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Eysenck와 Eysenck(1975)

가 제작한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근거로 측정되었다. EPQ는 Eysenck와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한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EPQ는 원래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허위성 혹은 사회적 욕망성의 네 가지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선행연구의 고찰(Belsky & Vondra, 1993)을 통해 부모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외향성과 신경증성 요인만을 선택한 전현진과 박성연(1999)과 같이 본 연구는 각각 14문항과 17문항으로 구성된 이 두 가지 요인만을 어머니의 인성 특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EPQ 원본은 문항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응답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응답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외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열성적이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경증성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우울하며 적대적이고, 자의식이 강하며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자아력(ego strength)이 낮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향성 문항에는 '나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활기가 넘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신경증성 문항에는 '나는 별 이유없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외향성과 신경증성의 경우 각각 $\alpha=.89$ 와 $\alpha=.86$ 이었다.

4) 아동의 초기 기질

아동의 초기 기질은 생후 6~12개월에 아동이 보인 정서적 특성에 대하여 회고식으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며, Carey와 Mcdevitt(1978)의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RITQ)의 일부 문항을 선택·번안한 이

미정(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RITQ는 접근-회피성, 적응성, 정서성, 그리고 예민성과 같은 네 요인을 포함하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접근-회피성은 $\alpha=.74$, 적응성은 $\alpha=.80$, 정서성은 $\alpha=.74$, 그리고 예민성은 $\alpha=.55$ 이었다. 그 중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예민성 요인의 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접근-회피성, 적응성, 그리고 정서성의 세 요인만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Doh와 Falbo(1999)의 Parental Protectiveness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기취급 행동(babying behavior) 7문항과 보호적 행동(sheltering behavior) 5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아기취급 행동은 아이를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도와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보호적 행동은 아이가 처한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아기취급 행동은 '아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 준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등과, 보호적 행동은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혹시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 등을 들 수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보호적 행동 요인의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 요인 7문항과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 요인 4문항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아기 취급 행동 요인과 보호적 행동 요인이 각각 .78과 .80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0년 12월~2001년 2월에 걸쳐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아동편으로 어머니들에게 전달하였다. 배부된 총 300부의 질문지 가운데 21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70.7%).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 t-검증, 그리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알아보았다(<표 1>). 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대 거부 경험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아동의 접근-회피성 및 적응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은 평균 2.67(범위:1~4; SD=.38)로서, 어머니들은 중간 정도 수준의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평균은 남아가 2.61점(SD=.35), 여아가 2.70점(SD=.41)으로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 어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70, p>.05$), 어머니는 자녀의 성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경험과 수용 대 거부 경험의 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표 1〉 어머니의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11~21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어머니의 독립성조장/과잉보호 경험	-									
2. 어머니의 수용/거부 경험	.11	-								
3. 어머니의 외향성	.08	.09	-							
4. 어머니의 신경증성	-.27***	-.16*	-.25***	-						
5.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	-.20**	.01	.03	.20**	-					
6.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	-.22**	-.06	-.14*	.27***	.39***	-				
7. 아동의 접근-회피성	.07	.09	.21**	-.09	-.21**	-.14*	-			
8. 아동의 적응성	.10	.13	.18**	.01	-.06	-.10	.67***	-		
9. 아동의 정서성	.11	.07	.07	-.09	-.07	-.13	.55***	.56***	-	
10. 어머니의 분리불안	.01	.30***	-.00	.04	.19**	.29***	-.21**	-.17*	-.10	-
M	2.72	3.00	2.47	2.33	2.48	2.59	2.54	2.81	3.04	2.67
SD	.35	.45	.41	.36	.47	.57	.48	.67	.46	.38

*p<.05 **p<.01 ***p<.001

〈표 2〉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종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경험	-.02	-.02
수용 대 거부 경험	.26	.30***
R ²	.09	
F	10.37***	

***p<.001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종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어머니의 수용 대 거부 경험만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beta=.30, p<.001$), 어린 시절에 수용적으로 양육된 경우 어머니는 현재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더 불안해 하고, 반대로 거부적으로 양육된 경우 자녀와의 분리에 대해 덜 불안해 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아동기 경험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9%에 해당하였다. 〈표 1〉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3. 아동의 초기 기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아동의 초기 기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

〈표 3〉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아동의 초기 기질의 종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접근-회피성	-.16	-.20*
적응성	-.04	-.67
정서성	.04	.05
R ²	.05	
F	3.43*	

*p<.05

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기질의 하위 요인인 접근-회피성, 적응성 그리고 정서성의 세 가지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종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아동 초기 기질의 요인들 가운데 접근-회피성만이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유의적으로 예측하였다($\beta=-.20, p<.05$). 즉, 아동이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는 기질일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덜 느끼는 반면,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주로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을 둔 어머니는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불안해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아동의 기질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5%에 해당하였다.

4.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기취급 행동 및 보호적 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변인을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분리불안 이외의 어머니 요인 및 아동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아동의 초기 기질 변인들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분리불안만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두 가지 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아동의 초기 기질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인들만을 선택하여(표 1) 참고)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독립변인에 더해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의 경우,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경험($\beta = -.15, p < .05$), 어머니의 신경증성($\beta = .15, p < .05$), 그리고 아동의 접근-회피성($\beta = -.18,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인에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자녀를 아기취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5$).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에 대한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12%이었다(표 4).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의 경우,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경험($\beta = -.15, p < .05$)과 어머니의 신경증성($\beta = .21, p < .01$)이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인에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추가하여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어,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자녀의 위

〈표 4〉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β	R ²	ΔR^2
STEP 1	어머니의 독립성 조장 경험	-.15* (-.15*)	.10	
	어머니의 신경증성	.15* (.15*)		
	아동의 접근-회피성	-.18** (-.15*)		
STEP 2	어머니의 분리불안	.15*	.12	.02

*p<.05 **p<.01

주: 괄호안은 STEP 2의 β 값임

〈표 5〉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β	R ²	ΔR^2
STEP 1	어머니의 독립성 조장 경험	-.15* (-.16*)	.11	
	어머니의 외향성	-.05 (-.07)		
	어머니의 신경증성	.21** (.20**)		
	아동의 접근-회피성	-.10 (-.04)		
STEP 2	어머니의 분리불안	.28***	.18	.07

*p<.05 **p<.01 ***p<.001

주: 괄호안은 STEP 2의 β 값임

험에 대해 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beta=.28$, $p<.001$).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대한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18%이었다(<표 5>).

5. 어머니의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 및 아동 특성변인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매개변인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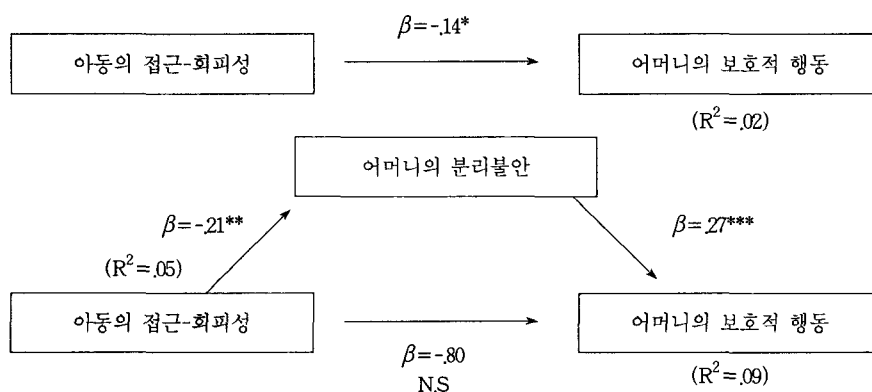
<표 6>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아동의 접근-회피성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아동의 접근-회피성	-.09	-.08
어머니의 분리불안	.40	.27***
R^2	.09	
F	10.15***	

*** $p<.001$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표 1>에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표에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서, 어머니 및 아동 특성 변인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등의 변인들 가운데 아동의 접근-회피성, 어머니의 분리불안, 그리고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과 아동의 접근-회피성, 어머니의 분리불안, 그리고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이었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단계에 의해 첫 단계에서는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에 대한 아동의 접근-회피성의 설명력이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통제되었을 때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에 미치는 아동의 접근-회피성의 영향력은 아동의 접근-회피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아동의 접근-회피성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감소되었다($\beta=-.21$, $p<.01$ 에서 $\beta=-.14$, $p<.05$). 이



* $p<.05$ ** $p<.01$ *** $p<.001$

<그림 1>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매개적 역할

러한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속변인인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미치는 아동의 접근-회피성의 영향력은 아동의 접근-회피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아동의 초기 기질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으며, 3~6세 유아의 어머니 21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인성 특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만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수용대 거부 요인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즉, 어린 시절에 수용적 양육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현재 자신의 아이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인 애착표상을 의미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Bowlby, 1973; Fraiberg, Adelson & Shapiro, 1975; Lutz & Hock, 1995)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표상을 형성한 어머니의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Lutz &

Hock, 1995)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립심을 격려하는 서양과는 달리 몸에 부처 키우는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문화적인 특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에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반적으로 자녀를 수용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문화배경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모와 자녀간의 강한 유대는 자녀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맘이 들게 할 수 있으며, 분리에 대해서 부모가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수용적으로 키워진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수용적이고 가까워서 잘 돌보아 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심리로 자녀와 분리될 때 염려·불안의 정서를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부적인 양육을 경험했던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양육유형의 일환으로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별로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의 측면에서의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나 불안·우울하며 적대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아력이 낮은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대인간 애정과 자아력,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나 우울 성향의 인성 특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김은형, 1995; 송진숙, 1994; Hock & Schirtzinger, 1992; McBride & Belsky, 1988)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성 특성 척도인 외향성과 신경증성 척도는 그 내용상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처럼 '우울 성향'과 같이 한 가지 성격 차원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본 척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인성 특성을 묻는 신경증성에 대한 문항은, '나는 별 이유없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등으로 부정적 자기인식, 불안, 우울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본 연구결과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Hock과 Schirtzinger(1992)의 종단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생후 8개월이나 3년 6개월일 때와는 달리 6세일 때에 자녀와의 분리에 대해 매우 높은 불안을 보인 어머니들의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영아기 때에 보이는 높은 수준의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애착에 대한 요소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자녀가 6세가 되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이는 어머니들의 경우는 어머니의 인성 측면에서 부적응적이거나 병리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은 4~6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머니가 나타낸 분리불안 또한 중간 정도의 수준인 점을 미루어 보아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어머니 개인의 외향성 또는 신경증성과 같은 일반적인 인성 특성이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확장이 되어서 분리 시에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초기 기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기 기질의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접근-회피성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즉, 자녀가 생후 6~12개월일 때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주로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은 불안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및 낮가림 경험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에 매우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김민지, 2000; 박성옥, 1993; 안지영·도현심, 1998; McBride와 Belsky198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자녀의 초기 기질을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는 어려운 기질로 인식할수록 어머니가 더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나타내는 것은 진화론적·동물행동학적 입장에서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지닌 자녀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로 해석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영유아기 때에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자녀를 가까이서 돌보아 주려 하고 자녀와 떨어졌을 때에는 행여 힘들어하거나 잘못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어머니들은 자녀와 분리될 경우 이를 불안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기질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과 보호적 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 때, 어머니는 아이를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도와줌으로써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취급 행동을 보였다. 또한, 아이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행동특성인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안지영·도현심, 1998)와 높은 수준의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 행동을 부추긴다는 연구결과들(Benedek, 1970; Levy, 1970)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지닌 다른 특성 또는 아동이 지닌 특성보다도 자녀와의 분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의 경우에 아이에 대해서 과

잉 염려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행동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존성을 조장하여 독립심의 발달을 저해하게 됨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의 발달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어머니의 특성임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을 결정하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의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접근-회피성은 어머니의 보호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의 접근-회피성이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접근-회피성은 어머니의 아기취급 행동에 직접적 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에 기인한다기 보다, 자녀의 기질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자체보다는 자녀의 기질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와 분리할 때 느끼게 되는 걱정과 불안감,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데 보다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초기 기질을 접근을 회피하는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접근-회피성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

리불안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초점을 두어왔던 어머니의 취업이나 타아와 같은 변인들 이외의 어머니 및 아동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아동의 초기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수료하기 직전인 연말과 연초에 조사되었는데, 이 시기는 아이들이 기관에 매우 익숙하게 적응하고 있는 시점으로 어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이 다소 감소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할 때 학기초와 같이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다소 높을 수 있는 시기에 연구를 실시해 봄으로써, 반복적 경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결정 변인들과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확장시켜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까지도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어머니의 분리불안 정도는 아동과의 분리기간과 아동의 연령 등 여러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민지(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그들의 종일반 탁아기관에서의 적응.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형(1995). 어머니의 역할관과 역할갈등이 어머니 격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진숙(1994).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빌 아이젠크, 이현수(1985). 아이젠크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영국-. 한국심리학회지, 5(1), 51-66.
- 안지영, 도현심(1998). 자녀 양육행동, 아동의 낮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6(8), 13-20.
-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1997).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1999). 취업모의 사회지지체계와 격리불안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 153-170.
-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edek, T. (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ek(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 153-166) Boston: Little, Brown.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Carey, W. & Mcdevitt, S. (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Pediatrics, 61*, 735-739.
- Cohen, L. & Campos, J. (1974). Father, mother, and stranger as elicitors of attachment behaviors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46-154.
- Cummings, E. (1980).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1-37.
- Doh, H.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Fraiberg, S., Adelson, E., & Shapiro, V. (1975). Ghosts in the nursery: Psychoanalytic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mpaired infant-mother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3*, 387-421.
- Hinde, R. & McGinnis, L. (1977). Som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s of a temporary mother-infant separation: Some experiments with rhesus monkeys. *Psychological Medicine, 7*, 197-212.

- Hock, E., Gnezda, T., & McBride, S.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Hock, E. & Schirtzinger, M. (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 93-102.
- Levy, D. (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 387-409). Boston: Little, Brown.
- Lutz, W. & Hock, E. (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57-72.
- McBride, S. & Belsky, J. (199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07-414.
- McCrae, R. & Costa, P. (1980). Openness to experience and ego level in Loevinger's sentence completion test: Dispositional contributions to developmental models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79-1190.